



KOREAN A1 – STANDARD LEVEL – PAPER 1
CORÉEN A1 – NIVEAU MOYEN – ÉPREUVE 1
COREANO A1 – NIVEL MEDIO – PRUEBA 1

Friday 18 November 2005 (afternoon)
Vendredi 18 novembre 2005 (après-midi)
Viernes 18 Noviembre 2005 (tarde)

1 hour 30 minutes / 1 heure 30 minutes / 1 hora 30 minutos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 Write a commentary on one passage only. It is not compulsory for you to respond directly to the guiding questions provided. However, you may use them if you wish.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e).
- Rédigez un commentaire sur un seul des passages. Le commentaire ne doit pas nécessairement répondre aux questions d'orientation fournies. Vous pouvez toutefois les utiliser si vous le désirez.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criba un comentario sobre un solo fragmento. No es obligatorio responder directamente a las preguntas que se ofrecen a modo de guía. Sin embargo, puede usarlas si lo desea.

다음 중 하나를 골라 해설하시오.

1(a) 남기고 떠난 인정

고모님 댁이 대궐 같은 집으로 이사를 한다기에 아내와 더불어 찾아갔다. 널따란 대지에 40 여평
 5 이나 되는 단층 양옥이 양반집 만며느리 마냥 듬직하게 들앉아 있었다. 대문을 들어서니 곧바로
 눈에 안겨오는 것은 정갈스레 갈무리 된 정원. 돌맹이 하나 하나,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풀 한
 포기 한 포기가 예술적 품격을 갖추고 때깔 좋게 한데 어우러져 있어서, 옛 주인의 높은 미적
 10 안목을 웅변으로 설명해 주는 것 같았다. 옛 주인이 이사갈 때 옮겨감직도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손상되지 않게 그대로 놓아두었던 것이다. 건평이 40 여 평 이나 되는 건물이라는데 걸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막상 현관을 들어서서 내부 구석구석을 살펴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쓸모 있게 오밀조밀 설계되어 있는 내부구조도 나무랄 데가 없었지만, 장식
 15 하나 하나가 튼튼하면서도 우아한 멋을 겸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걸만 번지르하게 꾸미고,
 내부는 눈가림 식으로 얼렁뚱땅 해치운, 여느 집장사들이 지어 놓은 그런 집에 익숙한 나의
 눈에는 모든 게 신기하게만 보였다. 안으로만 웅글게 영근 석류를 닮았다고나 할까? 더욱
 감격스러운 사연이 있다. 이사를 떠난 옛 주인 아주머니의 빈틈없는 배려가 그것이다. 이삿짐을
 모두 옮기고 난 뒤, 말끔하게 청소를 해 놓았을 뿐 아니라, 수많은 스위치나 콘센트마다
 “ 이것은 현관의 외등입니다.”, “ 이것은 전화선입니다.”, “ 이것은 TV 안테나
 20 선입니다.”, “ 이것은 인터폰입니다.” 라고 빠짐없이 메모지에 써 붙여 놓았더라는
 것이다. 더구나 이런 편지까지 남겨놓고 떠났더라는.

“ 아주머니, 뵙지도 못하고 떠나게 되어 섭섭합니다. 저 나름대로 집을 정갈스럽게 가꾼다고
 가꿔 보았습니다만 아주머니의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군요. 아무쪼록 이사 들어오셔서 더욱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20 얼마나 자상하고 친절하며 정겨운 마음씨인가? 지난 봄 우리집의 이사할 때 정경이 떠올랐다.
 거들어주려고 오신 친척 아저씨 한 분이 나도 몰래 형광등이며 선반이며 심지어는 벽에 붙여
 놓은 옷걸이까지 몽땅 떼어 오셨었다. 새로 이사갈 집에서는 소용이 없는 데도 깡그리
 떼어버렸다. 온통 망가져서 영 못쓰게 된 것도 많았다. 화단에 심어져 있던 꽃이나 나무도 예외
 없이 징발되었다. 얼마나 대조적인가? 이사 들어온 새 주인의 기분이 어땠을까? 나는 부끄러워
 25 얼굴이 붉어졌다. 현대는 밥먹듯이 이사를 자주 하는 시대다. 셋방살이는 말할 나위도 없고,
 자기 집을 가진 사람들도 필요에 따라 손바닥을 뒤집듯 곧잘 이사를 한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엄연히 보장된 민주국가의 국민이니 제어할 일은 아니다. 이사가 잦아보니 이삿짐 센터 라는
 새로운 직업이 호경기를 누리기도 한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 이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줄 안다. 나도 역시 열 손가락으로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자주 이사를 한 경험이 있다.
 30 그럴 때마다 별다른 생각없이 이삿짐을 옮기곤 했었다. 그런데, 나는 고모님댁의 이사를 계기로,
 뒤늦게나마 이사할 때의 예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고모님댁의 옛 주인 아주머니가
 훌륭한 학벌의 소유자도 아니요, 부러울 정도의 재산가도 아니란다. 더구나, 그 아주머니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몸으로 자녀를 가르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와 같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이 살벌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35 세상이 꼭 그렇지만은 않은가 보다. 옛 주인 아주머니의 사랑이 여울진 고모님댁 정원에는
 탐스러운 국화가 가을을 머금고 노오랗게 웃고 있다.

(김학, ‘남기고 떠난 인정’ 수필집 ‘철부지의 사랑 연습’)

이 수필의 소재는 무엇인가?

이 수필의 주제는 무엇인가?

이 수필의 구조적 특징은 무엇인가?

이 수필에서 얻게 된 교훈은 무엇인가?

1. (b)

자수(刺繡)

마음이 어지러운 날은
수를 놓는다.

금실 은실 청홍실
따라서 가면

5 가슴 속 아우성은 절로 같았고

처음 보는 수풀
정갈한 자갈돌의
강변에 이른다.

남향 햇볕 속에

10 수를 놓고 앉으면

세사번뇌(世事煩惱)
무궁한 사랑의 슬픔을
참아내을 듯

머언

15 극락정토(極樂淨土) 가는 길도
보일 상 싶다.

(허영자, 자수(刺繡) 시집 [가슴엔 듯 눈엔 듯])

시에서 ‘자수’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시의 종교적 배경은 무엇인가?

이 시의 전체적 분위기는 어떠한가?

이 시의 주제는 무엇인가?